



이공계 출신 CEO 미국 암벡스사 이종문 회장 “입사 순간부터 창업을 생각하라”

“전 문지식을 갖춘 이공계학생들이 최고경영자(CEO)로 성공할 가능성이 큼니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암벡스벤처그룹 이종문(李鍾文·75) 회장이 최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열린 특강은 KAIST 학생까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의대로 가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열린 강의여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술전공자도 비즈니스 정신을 배워야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CEO의 최고 리더십은 기업의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제 해결능력은 과학기술을 배운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과학 전공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경영능력을 갖춘 CEO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분야에서도 경영 관련 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한국은 과학기술 전공 CEO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일본·대만·중국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지식산업분야 인재층도 빈약합니다. 이공계에서도 경영학을 배울 수 있게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는 “기술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과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의 기본과정이며 창조를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인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사이에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학기술창조 입국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합의가 제도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데 책임을 맡고있는 사람들의 전문지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대에 뒤쳐져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후 “인간의 창조성은 탄력적이고 여유있는 환경서 꽃을 피우기 마련인데 법과 제도가 경직되면 엔지니어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과학기술 전공자는 기업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인

젠가는 창업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공과대에 입학한 뒤 중도포기하고 의대나 한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비이성적 태도”라고 충고했다.

이 회장은 경영자의 성공조건으로 정직, 집착력, 속도 등 3가지 요소를 꼽았다. 사회로부터 정직을 인정받고 현안에 대한 순간순간 대처능력을 갖추면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이 회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54년)한 뒤 종근당에서 상무로 일하다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종근당 설립자인 고 이종근(李鍾根) 씨의 친동생이다. 그는 미국에서 1982년 컴퓨터그래픽카드 전문제조회사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시스템스를 창업해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어 1996년에는 자신의 회사지분을 팔아 4억6천800만 달러(약 5천50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 자금으로 벤처캐피털인 암벡스벤처그룹을 설립했다. 그는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시아박물관에 1천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현재도 미국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신화’를 일궈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㉔

글_ 김방현 중앙일보 기자 kbhkk@joongang.co.kr